

총선 D-23

민주 박재승-박상천 전략공천 정면 충돌

“예외없다” 주장에 “인준 못해” 버티기

박재승, 호남 4곳도 여론조사 경선 관철

박상천 “민주당 죽이고 도로 우리당 가나”

박상천 공동대표와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 여론조사경선관리위원회가 박상천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요구 지역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조사경선을 밀어붙임에 따라 내부 갈등으로 인한 공천 지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통합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략공천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만한 타결 가능성은 낮다. 지난 16일 통합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박상천 대표가 요구한 호남지역 4곳(광주 광산갑, 광주 서갑, 광주 서을, 전북 익산을)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경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박 대표가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도 김효석 의원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략지역 결정 권한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할 양반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제가 예측한대로 그런 분이 나타났다”며 박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에서는 ‘박재승의 난’을 넘어 사실상의 ‘구 민주당 죽이기’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이를 모른체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정치

적 배신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 대표 측은 1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공천 인준 거부 예기마저 나오고 있다.

박상천 대표 측 관계자는 “공천 결과를 보

면 열린우리당 출신 현역의원들뿐만 아니라 평가점수에서 D등급을 받은 신기남 의원 등 현역의원 9명도 전원 공천을 받았다”며 “친노 색채가 뚜렷한 박 위원장이 결국 ‘도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구 민주계 측에서는 외부 공심위원들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압축 후보군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이뤄진 103곳의 지역구 공천에서 구 민주계 인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상

황이며 이는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구 민주당 측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전략공천 지역 확정 및 일부 지역구 공천 인준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표가 인준 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 민주계 일각에서는 중앙당 접거 등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번 타자’ 강금실 유력

정운찬·정세현·김상희·박선숙 거론

민주 비례대표 누가 되나

통합민주당이 17일부터 18대 총선 비례대표 점수를 시작하면서 ‘공천 2라운드’에 돌입한다.

박재승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심사위원회의 지역구 ‘개혁공천’이 성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비례대표 공천으로 또 다른 바람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정동영 전 통일장관의 대선 득표율(26.1%)을 기준으로 15석 안팎을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지만 당 지지율이 상승국면인 만큼 18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손학규 박상천 두 대표와 박재승 공심위원장간 ‘3자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수에 예정되는 여성 비례대표 후보군에는 강금실, 김상희 최고위원,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 박근욱 국회의원 비서실장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경천 전 의원도 구 민주계 추천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서영교 전 부대변인, 유은혜 부대변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임해자 공보국장이 당 내에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외부 영입인사로는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장과 고연호 전 전국여성경

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강금실 최고위원의 경우 상징성이 큰 ‘1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수에 예정되는 남성 후보로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1순위 영입 대상이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지난 대선 때 중소기업인 3천명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주봉 KC(한국종합화학) 회장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민주당 추천 몫의 공천심사위원인 김충호 최고위원과 황태연 동국대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과학기술특보였던 여인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와 김광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특위위원장, 정용택 국회 정책연구위원, 박인환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통합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인 조영종씨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남 인베 차원에서는 정오규 부산시당위원장, 천정배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김호진 전 당 채신위원장과 채신위원이었던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재승 효과 속편을 찾아라”

민주, 선거국면 주도할 새 이슈 개발 고민

통합민주당의 4·9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재승 효과’ 후속 소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개혁공천을 내세운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때문에 당 지지도를 올리면서 총선 정국에서 한나라당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를 찾았지만 공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힘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대폭적 몰락이 감행할 때 반해 민주당의 경우 남은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 공천 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과 내각인선 파문에 이은 새로운 이슈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18일 백범기념관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총선을 향한 조직 정비를 끝낸 뒤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기할 2대 화두는 ‘민생 제일주의’와 ‘한나라당의 일당독재 견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난이 가중되고 특히 ‘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특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한나라당의 ‘안정론’에 맞서 새 정부의 독선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견제세력과 정책야당이 필요하다는 ‘견전야당 견제론’을 집중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새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간다는 전력이다.

하지만 이런 선거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공천 정국을 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심위가 주도, 당 지지도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심위가 주도하는 국면을 당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이번 4·9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 통합민주당 정동영 전 장관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정 의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동작에서 저의 정치적 인생을 새로 쓰고자 한다”며 동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번 당선된 정 의원의 서울 출마설은 정치권에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치 1번지’로 거론되는 종로나 중구가 출마 후보지로 오르내렸으나 정 의원은 측은 그때마다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서울 종로, 정 전 장관이 동작을 출마

정몽준 - 정동영 ‘동작을 빅매치’

정의원 어제 출마 선언... 정동영 “올테면 오라”

하기로 선언하면서 정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이 서울 북부벨트와 남부벨트를 책임지는 ‘투 톱 체제’로 선거전을 이끌 경우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나라당에서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은 출마를

장관과의 맞대결을 요청, 이번 총선 최대의 빅매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정 의원이 텃밭인 울산을 버리고 모험을 감수기로 한 것은 5선 최고위원의 위상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정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 승리, 차기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동작구민을 위해 깨끗하고 좋은 경쟁을 해 보겠다”며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 제일의 명산 황산

가장 천리하고 가장 공심력있는 **MBC 문화탐방**

황산·장가계

전세기 소요시간 1시간 30분

2008년 4월 21일 ~ 5월 10일 (매주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산(신라시대) - 황산 ₩92,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산(신라시대) - 황산 ₩92,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산(신라시대) - 황산 ₩92,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산(신라시대) - 황산 ₩92,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2008년 4월 25일 ~ 5월 27일 (매주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 - 장가계 - 장가계 ₩44,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 - 장가계 - 장가계 ₩44,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 - 장가계 - 장가계 ₩44,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 - 장가계 - 장가계 ₩44,000 (세탁비 포함) ~ ₩448,000 (세탁비 포함)

황산문화관광공사 문의: 02-226-6070